

## 탁아및 취업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박 성 우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취업이나 기타 일상적 이유로 아이와 떨어져야만 하는 어머니들의 격리불안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탁아상황과 어머니의 취업관련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6-36 개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297명을 개별 면접 하였다. 표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Kruskal-Wallis ANOVA, t 검증, F 검증, 상관관계등의 통계방법을 통해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1) 탁아상황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대리양육자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라서만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마음이 놓인다.'의 경우에 나타난 격리불안에 비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의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격리불안 평균순위를 나타냈다. 2) 어머니의 취업과의 관계에서는, 출산전에 취업계획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취업보다 아이와 함께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은 격리불안을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어머니의 격리불안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상태와 그 만족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에서는, 직업이 있으면서 그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격리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여성들의 취업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취업모를 위한 영·유아 탁아시설과 제반 여건이 매우 빈약한 현 시점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탁아와 아울러 여러 형태의 다양한 취업여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어머니로부터 격리된 아동에 대한 임상적 흥미와 실증적 연구는 부모와 아동이 장기간 또는 영구히 서로 격리되어진 경우가 허다했던 2차 세계 대전때 처음 시작된 (Anna Freud ; Mcbride, 1983 재인용) 이후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영아에게서 격리불안이

나타나고 감소되는 시기뿐 아니라 이러한 영아의 격리불안을 유발하고 조정하는 요인 등이 여러 연구(Cohen & Campos, 1974; Weinraub & Lewis,1977; Cummings, 1980)를 통해 검증되었

다. 많은 발달심리학자들이 어머니-영아 격리의

\* 이 논문은 1993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과정을 인간발달의 이해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영아측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던게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행동, 태도, 감정 등의 변인이 중요한 것이라고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같은 격리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불안을 단순히 부수적인 사건으로 인식, 제대로 측정조차 하지않았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Hinde 와 McGinnis(1977)의 연구가 그같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이들은 새끼로부터 떼어놓은 벵골산 어미원숭이의 격리반응을 관찰한 결과, 격리시기 동안 어미나 새끼 양쪽 모두 상호작용의 능력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시 말해서, 어미들과 새끼들은 다시 재결합된 후에도 이전에 가졌던 관계를 한동안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비록 유사한 결과가 인간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격리에 대한 반응이 어머니나 아동의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결과는 시사해 주고 있다(Schaffér, 1977). 이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영아의 격리불안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던 발달심리학자들의 연구방향을 어머니쪽의 격리불안에 관한 관심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어머니의 행동 및 심리적 특성은 아동이 나타내는 격리관련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정변인이라는 연구발표도 그 중의 하나였다(McBride & Belsky, 1988). 또한 Hock(1976)도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아동의 행동이 서로 관련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8개월된 영아를 둔 어머니를 면접한 결과, 그 어머니가 보인 격리불안이 1세때 실험실에서 나타낸 영아의 격리행동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격리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영아가 격리를 극복하려는 행동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Hock & Clinger, 1981). 어머니가 나타내는 격

리불안을 유발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그같은 격리를 부정적인 사건으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이라는 결과도 제시되었다(Maital,1983). 이런 연구들은, 격리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이 격리사건에 대한 영아의 인식뿐 아니라 뒤따라 보여지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아울러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복지와 행동에도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 고취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모성애에 대한 전통적 태도, 특히 자녀는 어머니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 경제기획원에서 밝힌 여성노동 인구는 결혼하여 유아를 양육하게 되는 연령인 24세-29세를 기점으로 53.0%에서 30.2%로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막내자녀의 취학시기라 할 수 있는 35세-39세에는 33.5%에서 43.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권영자, 1986). 이것으로 미루어 영.유아를 가진 취업모의 격리불안의식은 매우 높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다만 어머니-영아의 애착행동 및 격리에 대한 연구(정영숙, 1976; 이주혜, 1980; 박은숙, 1981; 고경애, 1983 등)들이 다소 있으나, 이 연구들은 모두 영아가 갖는 불안과 발달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뿐 어머니들이 갖는 격리불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격리불안에 대한 이론과 실증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갖는 격리불안의 특성을 개념화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국내에서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머니의 격리불안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아동발달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며, 동시에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격리불안의 특성 및 관련변

인과 같은 실증적 자료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취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아동 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취업모를 위한 영.유아 탁아와 같은 제반 여건이 매우 빈약한 현 시점에서, 취업모를 위한 다양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탁아나 보호의 질적인 유용성이나 사회정책적 지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면, 본 연구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갖는 격리불안과 관련된 특성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연구문제 1> 자녀와의 격리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와 탁아에 따라 어머니가 나타내는 격리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출산전 취업계획, 현재 취업상태 및 만족 그리고 취업의 선호성에 따라 어머니가 나타내는 격리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또한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어머니가 나타내는 격리불안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생후 6-36개월된 영.유아의 어머니 33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표집방법은 대전시 전체 5개의 행정구 중에서 각 인구분포별로 4개 내지 5개의 소아과를 임의로 선정하여 그 병원에 다니는 영.유아의 어머니에게 면접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여러 직종의 취업모를 표

집하기 위해 일부 조사대상자는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면접조사 중 아이가 심하게 울거나 보채어 조사가 중단된 어머니 18명과 면접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어머니 15명의 조사결과는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297명의 경우만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격리불안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는 조복희와 박성욱(1992)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어머니 격리불안 척도는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즉 '일반적인 어머니의 격리불안(13개 문항)', '아동의 격리반응 및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10개 문항)',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가치(6개 문항)', '신체적 접촉 및 밀접함에 대한 열망(5개 문항)'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격리관심 및 태도(5개 문항)'의 총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격리불안 척도의 5개 하위영역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일반적인 어머니의 격리불안' 13개 문항만을 본 조사의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형의 측정도구이다. 어머니 격리불안의 측정된 점수의 범위는 13-65점이며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격리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어머니의 격리불안에 관한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두가지 경우로 살펴본 바 첫째, 내적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반영해 주는 Cronbach의  $\alpha$ 계수가 .88로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척도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에서 Pearson의  $r$ 계수는

전체 .75( $p < .001$ )로 나타났다.

타당도에서도 요인분석의 통계절차를 통해 구인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Spielberger의 상태불안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바  $r = .36$  ( $p < .001$ )으로 나타나 준거관련 타당도가 입증되었다(조복희와 박성옥, 1992).

## 2. 취업 및 탁아상황에 대한 면접조사

취업에 관한 조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관련된다 고 여겨지는 출산전 취업계획의 여부, 현재의 취업상태 및 그에 따른 만족도와 앞으로의 선택사항으로 '집에 있기를 원하는지' 또는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취업선호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탁아상황에 대한 조사는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거나 일상적 격리동안의 대리양육 형태가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관련된 주요변인이라고 보아 대리양육자, 맡기는 빈도, 대리양육자에 대한 신뢰정도, 대리양육자를 선정한 이유, 그리고 대리양육자의 변경정도의 다섯가지 상황을 반구조화된 질문유형으로 조사하였다.

## 3.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Farel(1980; 이희경, 1981 재인용)이 개발한 척도를 축소 적용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는 첫째,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둘째,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대별하여 각각 6문항씩 모두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렇다(3점)', '보통(2점)', '그렇지 않다(1점)'의 Likert식 3점 척도형의 측정도구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에 의하여 산출된 내적합치도가 .82이고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는 Pearson의 상관계수가 .93 ( $p < .001$ )으로 나타나 매우 안정적인 척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 연구절차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응답범주, 용어, 질문의 표현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누락시킨 후 다음과 같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2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완료되었으며, 조사과정은 면접의 유의사항과 면접방법을 훈련받은 면접원 10명이 사전에 전화와 서신을 통해 협조를 의뢰한 바 있는 대전시에 소재하는 18개 소아과를 방문하여 그곳에 와서 대기중이거나 진료를 마친 6개월-36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어머니에게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면접원 2명이 1조가 되어 한명이 면접하는 동안 나머지 면접원은 아이를 돌봐주었으며 각 면접조사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외에 의도적으로 여러 계층의 취업모를 선정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교사, 간호사, 공무원, 상업, 보험원, 판매원 등의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해당기관에 협조를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도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조사를 끝마치고 약 1개월후인 8월 20일부터 9월 3일 사이에 본 조사에 참여한 63명을 재조사하였다. 재조사 대상자의 추출방법은 297명의 본조사 대상자중 80명을 임의로 추출한 후 전화로 재조사에 응해줄 것을 의뢰하여 이중 재조사에 승락한 6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대부분의 통계처리는 spss/pc+를 이용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

출한 다음,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1>의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취업이나 일상적 격리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와 탁아에 대한 실태 및 그에 따른 격리불안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과 Kruskal-Wallis ANOVA를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2>의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출산전 취업계획 여부, 현재 취업상태 및 만족 그리고 취업의 선호성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 F-test와 Scheffé의 중다비교 검증을 실시하고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어머니 격리불안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을 산출하였다.

## 결 과

### 1. 탁아상황과 어머니의 격리불안

#### (1) 대리양육형태와 어머니의 격리불안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밖에도 다양한 유형의 친척들(시누이, 친정동생, 조카, 이모 등)이 대리양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그 빈도(21명)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아기의 아버지가 대리양육자인 경우도 2명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오전에는 유아원에 갔다가 오후에는 할머니나 파출부 등이 아동을 돌봐주는 경우의 '결합형태'가 52명(19.1%), 마지막으로 28명(10.2%)에 이르는 '비친척'의 경우는 주로 가정부, 탁아모, 총일제 유아원 교사였는데, 이중 이웃(3명)이나 친구(3명)가 돌보아주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대리양육 형태에 따라 어머니가 나타내는 격리불안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Kruskal-Wallis 변량분석을 실시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대리양육자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는 크게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지만, 평균순위가 가장 높은 비친척의 경우에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결합형태의 경우에는 그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부나 탁아모 등 비친척의 양육에 대

표 1. 대리양육 형태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평균순위

|           | 대리양육자 | 친척        | 비친척      | 결합형태     |
|-----------|-------|-----------|----------|----------|
| 어머니의 격리불안 | N(%)  | 192(70.5) | 28(10.2) | 52(19.1) |
| 평균 순위     |       | 133.4     | 140.5    | 129.9    |

$$\chi^2 = .34 \text{ n.s}$$

먼저 대리양육 형태를 살펴보면, 낮시간 동안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기를 양육한 대리양육자로는 '친척'이 192명(70.5%)으로 제일 많았는데, 그중 친정어머니(89명, 46.3%)가 가장 많고 다음이 시어머니(80명, 41.6%)의 순으로 이들 두

해서 그 대리양육자가 아이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것인지, 혹시 귀찮아 하지는 않을 것인지 하는 애정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격리불안이 어머니들에게 반영된 반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와 같은 친척에 대해서는 주로 교육적인 측면(습관

형성, 독립심 등)과 관련된 격리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맡기는 빈도가 낮은 비취업모의 경우가, 거의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취업모에 비해 보다 높은 격리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2) 맡기는 빈도와 어머니 격리불안

표 2. 맡기는 빈도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평균순위

| 어머니의 격리불안<br>N(%) | 맡기는 빈도   |          |          |           |
|-------------------|----------|----------|----------|-----------|
|                   | 거의 매일    | 일주일에 두세번 | 한달에 한두번  | 거의 맡기지 않음 |
|                   | 94(33.6) | 41(14.7) | 69(24.7) | 75(26.8)  |
| 평균 순위             | 126.6    | 129.3    | 138.9    | 149.0     |

$$\chi^2 = 3.6 \text{ ns}$$

취업이나 여려가지 이유로 대리양육자에게 반나절 혹은 종일 아이를 맡기는 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맡기는 경우는 94명(33.6 %)으로 대부분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이며, ‘일주일에 두세번’ 맡기는 41명(14.7 %)의 어머니의 경우는 주로 시간제 일을 하는 어머니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 취미 등의 사유를 가진 어머니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 ‘한달에 한두번’ (69명, 24.7 %) 혹은 ‘일년에 한두번이거나 거의 맡기지 않는 경우’ (75명, 26.8 %)는 거의 비취업모의 경우였다. 맡기는 빈도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Kruskal-Wallis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맡기는 빈도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표 2에서 보듯이 대리양육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빈도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격리불안 평균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두세번’ 대리양육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어머니들은 대부분 전업제나 시간제의 취업모이며, ‘한달에 한두번’ 이하로 맡기는 경우는 대부분 비취업모라는 위의 면접결과로 볼 때, 맡기는 빈도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취업과 비취업의 양쪽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아이를 대리양육자에게

(3) 대리양육자에 대한 신뢰 정도와 어머니의 격리불안

대리양육자에 대한 신뢰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이 놓인다’가 192명(71.1 %), ‘보통’이 51명(18.8 %),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가 27명(10.0 %)으로, 대체로 대리양육자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리양육자가 대부분 친척이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양육자의 신뢰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Kruskal-Wallis 검증을 실시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3에서와 같이 평균순위가 가장 높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의 경우가 가장 높은 수준의 어머니 격리불안을 나타내는 반면, ‘마음이 놓인다’의 경우에 어머니가 나타내는 격리불안의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이때문에 직업을 가지지 않겠다.’고 응답한 297명 중 147명(49%)이라는 많은 수가, 만약 아이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이나 질적으로 우수한 탁아시설이 있다면 직업을 가지겠다는 면접결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을 제

공하거나 질적으로 우수한 영.유아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이 결과는 암시하고 있다.

돈 빈도(44명, 18.1 %)가 많았다. 대리양육자를 선정한 이유로 '다른 양육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는, 어

표3. 대리양육자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평균순위

| 대리양육자에 대한 신뢰정도 | 마음이 놓인다  | 보통        |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
|----------------|----------|-----------|-------------|
|                | N(%)     | 192(71.1) | 51(18.8)    |
| 어머니의 격리불안      |          |           |             |
| 평균 순위          | 122.4(0) | 140.5     | 193.6       |

$$\chi^2 = 20.99 \quad p < .001$$

(4) 대리양육자 선정이유와 어머니의 격리불안

표4. 대리양육자 선정이유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평균순위

| 대리양육자 선정이유 | 애정보호  | 비용        | 교육      | 마땅한 탁아시설이나 대리양육자를 구할수 없어서 |
|------------|-------|-----------|---------|---------------------------|
|            | N(%)  | 158(60.0) | 17(6.9) | 24(9.8)                   |
| 어머니의 격리불안  |       |           |         |                           |
| 평균 순위      | 115.8 | 132.9     | 108.6   | 136.9                     |

$$\chi^2 = 5.64 \quad ns$$

격리불안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실시한 Kruskal-Wallis 검정은, 표 4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대리양육자의 선정이유를 살펴보면, '애정과 보호'적인 차원의 기대로 대리양육을 맡겼다는 이유가 158명(65.0 %)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애정과 보호를 이유로 든 경우는 주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어머니들에게 나타난 응답으로, "비용이 덜들고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기 때문에",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애정과 보호' 다음으로는 '마땅한 탁아시설이나 대리양육자를 구할수 없어서'라는 점을 대리양육자 선정의 이유로

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를 맡길 대리양육자로부터 좀 더 이상적인 어떤 다른 형태의 것을 갈구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비용'이나 '교육'의 이유를 든 경우는 비교적 적은 숫자였는데, 이러한 점은 연구대상자의 자녀가 아직 어린 영.유아인 까닭으로 볼 수 있겠다.

표 4에서 보듯이 대리양육자의 선정이유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비용'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애정보호와교육적인 경우에 어머니 격리불안의 평균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이러한 결과는 탁아의 기능이 단순히 보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교육적인 측면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질 좋은

탁아 또는 교육기관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5) 대리양육자의 변경정도와 어머니의 격리 불안

대리양육자의 변경정도에 따라 어머니가 나타내는 격리불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Kruskal-Wallis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대리양육자의 변경에서 '잘 바뀌지 않는 경우'가 195명(78.6 %)으로, '보통'(40명, 16.1 %)이나 '자주 바뀐다'(13명, 5.2 %)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빈도를 나타내 대리양육자가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간혹 대리양육자가 바뀐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의 경우, 대부분 대리양육자의 사정이나 거주지의 변경등을 들고 있으며 교육상의 문제나 비용문제로 변경된 경우도 간혹 있다고 언급하였다.

출산전에 취업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앞으로 선택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나타내는 격리불안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한 결과, 표 6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변인 중 출산전 취업 계획 변인은  $p < .05$ 수준에서, 현재 취업상태와 취업선호성 변인에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출산전에 취업을 계획한 적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전업제든 시간제든 관계없이 취업을 한 어머니의 경우, 그리고 앞으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취업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경우가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격리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표5. 대리양육자 변경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평균순위

| 어머니의 격리불안 | 대리양육자의 변경정도 | 자주 바뀐다  | 보통       | 잘 바뀌지 않는다 |
|-----------|-------------|---------|----------|-----------|
|           | N(%)        | 13(5.2) | 40(16.1) | 195(78.6) |
| 평 균 순 위   |             | 135.5   | 131.6    | 108.4     |

$$\chi^2 = 3.86 \quad n.s$$

대리양육자의 변경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위의 표 5에서 나타나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지만, 대리양육자가 자주 바뀔수록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육기간이 짧아서 보살핌이 안정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영.유아기의 성장에 중요한 양육환경이 지속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어머니의 격리불안에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2. 취업관련 변인과 어머니의 격리 불안

(1) 출산전 취업계획, 취업상태, 취업선호 성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차이 검증

이에 비해 취업모의 경우는, 취업으로 인한 아동과의 격리경험이 어머니의 격리불안 수준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출산전에 취업을 계획한 어머니들의 경우와, 집에 있기 보다는 취업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경우는 어머니됨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보다는 자아실현과 성취욕구가 강한 보다 경력지향적인 여성들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와 믿음이 다른 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아동과의 격리과정에서 보이는 격리불안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6. 출산전 취업계획, 취업상태, 취업선택성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의 t검증

| 변인          | 내용   | N   | Mean   | SD    | t값      |
|-------------|------|-----|--------|-------|---------|
| 출산전<br>취업계획 | 유    | 127 | 44.81  | 9.11  | -2.03*  |
|             | 무    | 162 | 46.87  | 8.05  |         |
| 취업상태        | 유    | 102 | 43.48  | 10.02 | 3.66**  |
|             | 무    | 186 | 47.27  | 7.42  |         |
| 취업선택성       | 집선택  | 198 | 47.70  | 6.92  | 5.33*** |
|             | 취업선택 | 98  | 42.200 | 10.41 |         |

\* $p < .05$     \*\* $p < .01$     \*\*\* $p < .001$

(2)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어머니의 격리불안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어머니 격리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  을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를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태도와 어머니 격리불안간의 상관관계는  $r = -.41(p < .001)$ 로, 둘째,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태도와 어머니 격리불안간의 상관관계는  $r = -.33(p < .001)$ 로 나타나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자녀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수록 어머니가 나타내는 격리불안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 취업상태 및 만족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어머니 취업상태 및 만족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밝히기 위해서 어머니의 직업 유무별 만족도를 Yarrow, Scott, DeLeeuw 와 Heinig (1962)가 분류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즉 1)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직업이나 하는 일에 만족해 하는 어머니 그룹, 2) 직업을 갖지 않고 가정에만 머무르면서 그것에 만족해 하는 어머니 그룹, 3)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직업이나 하는 일에 불만족해 하는 어머니 그룹, 4) 직업을 갖지 않고 가정에만 머무르면서 그것에 불만족해 하는 어머니 그룹의 네 가지 집단이 그것이다. 이 각각의 집단에 따라 어머니 격리불안이 어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F검증과 Scheffe의 증다비교 검증을 실시, 표 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8에서 보듯이 어머니 취업상태 및 만족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7.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어머니의 격리불안간의 상관관계

| 직업에 대한 태도                           | 어머니의 격리불안 |
|-------------------------------------|-----------|
|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자녀에게<br>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태도 | -.41***   |
|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자신에게<br>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태도 | -.33***   |
| 전 체                                 | -.41***   |

\*\*\*  $p < .001$

## 결론

### 1. 탁아상황과 어머니의 격리불안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취업모를 위한 영·유아 탁아시설과 같은 제반 여건이 매우 빈약한 현 시점에서, 취업에 따른 자녀 양육 문제가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인 여성의 직업 불안정이나 높은 이직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녀양육의 책임을 완전히 맡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어느 집단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의 중다비교 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재 취업을 하지 않았으면서 그 상태에 만족하는 어머니의 경우가 취업을 한 상태로 만족하는 어머니 및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불만족해 하는 어머니의 경우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면접과정 내용과 관련지어 볼 수 있겠다. 직업이 없으면서 그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는 대체로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 격리 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불안을 어머니의 부재 탓으로 여기는 의식, 따라서 영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생물학

표8. 어머니 취업상태 및 만족여부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의 F검증

| 변인   |      | 통계치 | N  | Mean  | SD   | F값    | Scheffé<br>의<br>추후검증 |
|------|------|-----|----|-------|------|-------|----------------------|
| 취업상태 | 만족여부 |     |    |       |      |       |                      |
| 유    | 만족   |     | 45 | 44.60 | 6.47 | 3.36* | B                    |
| 무    | 만족   |     | 60 | 48.20 | 7.17 |       | A                    |
| 유    | 불만족  |     | 18 | 47.75 | 9.93 |       | A B                  |
| 무    | 불만족  |     | 29 | 44.20 | 6.31 |       | B                    |

\*  $p < .05$

적 어머니와 강하고 절대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고 믿는 의식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그들이 격리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격리불안을 나타내는 것도 그같은 믿음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가장 낮은 수준의 격리불안을 나타내는 경우, 즉 직업이 있으면서 그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일에 흥미를 가지고 직업을 갖는 것은 스스로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린이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일하는 것과 어머니됨으로부터의 만족감을 동시에 유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린 아동을 둔 어머니들이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어머니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거나 마땅한 탁아시설을 찾는 일이 필연적인 일인 동시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여겨진다.

취업이나 일상적 격리동안의 대리양육자 보호나 탁아에 대해서는, 단순히 애정이나 보호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리양육형태'와 '대리양육자 선정이유'와 연관지어 살펴보았듯이 교육적인 측면이 고려된 경우에 어머니들의 격리불안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앞서 결과로 도출한 바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누가 아이

를 돌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돌보느냐 하는 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 영양, 건강 서비스 등 '보호'와 '교육'기능을 통합한 질적으로 우수한 탁아나 유아교육 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받을 수 있다.

마땅한 탁아시설이나 대리양육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의 형태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오늘날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과거에 할머니들이 수행했던 대리양육자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들 역시 단순한 보호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우수한 양육의 질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취업모들이 안심하고 일하며 자기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 이외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기관, 종교, 학교기관에서 주관하는 기존 탁아시설과 함께, 회사, 공장, 종합병원이나 학교, 연구단지 등과 같이 여성 종사자가 많은 직장에서는 직장 안이나 근처에 탁아소를 설치하고 수요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2. 취업과 어머니의 격리불안

오늘날 경제적 필요에서부터 자기 성취에 이르는 다양한 이유에 따라, 기혼 여성의 사회참여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뿌리깊고 여성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온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적 제도하에서는, 취업으로 인한 어머니-아동 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취업으로 자녀들이 해를

입는다고 믿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 사람의 손에 그들의 자녀를 맡기고 직장으로 가려는 어머니들은 불필요한 죄책감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상태 및 만족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격리불안의 경우, 직업이 있으면서 그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격리불안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다. 아울러 취업을 선호하면서도 자녀때문에 직업을 가지지 않겠다는 경우와, 취업을 한 후 자녀로 인한 갈등을 느낀다는 이중의 가치관을 가진 어머니들의 경우, 아동과의 격리로 인한 걱정, 죄책감 등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볼 때, 격리를 유발하는 취업 유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온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그 아동과 생물학적 어머니와의 사이에 강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하며, 동시에 아동과의 격리를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으로 보는 과거의 사회문화적 관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아이의 정신건강은 한명 이상의 양육자에 의해서도 잘 유지되며, 특히 그 양육의 질이 좋기만 하다면 어머니가 돌볼때 만큼의 성장 발달도 가능하다는 관점, 아울러 아이들과 온종일 같이 있는 것만이 꼭 좋은 양육은 아니라는 관점(Schaffer, 1977)으로의 인식변화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관점으로서의 인식변화의 타당성을 지지해 주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대외활동을 원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이로 인한 불만이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Goldberg, 1978). 반면, 자신

의 직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어머니일수록 보다 너그럽게 자녀를 기르고 어머니-아동 상호 작용에서도 더욱 애정을 보이게 되며, 자신에 대한 만족이 모성으로서의 효율성을 촉진시킨다 (Hoffman, 1961)는 연구결과들도 주목할만한 예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성, 기질, 경력지향성 등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지속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는 탁아형태, 직업의 유형(직종, 근무시간)등 취업과 관련된 사회적 특성변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 격리불안의 결정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업환경의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의 폐지 등과 같은 가족.사회적 지원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고경애 (1983).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영자 (1986). 취업여성과 자녀양육. 1986년도 한국 아동학회 춘계 심포지움.

박은숙 (198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한국 유아의 낮가림, 격리불안 및 대물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주혜 (1980). 유아의 낮가림 및 격리불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재연·김명숙 (1990). 한국 취업모 자녀의 탁아 형태 변경 양상과 그 문제점. 아동연구, 5, 7-36.

이희경 (1981). 모의 취업이 자녀의 적응과 어머니의 자녀 양육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정영숙 (1976). 한국유아의 낮가림과 격리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복희·박성옥 (1992).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13(1), 16-37.

Cohen, L. & Campos, J. (1974). Father, mother, and stranger as elicitors of attachment behaviors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46-154.

Cummings, E. (1980). Caregiver stability and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16, 31-37.

DeMeis, D. K., Hock, E., & McBride, S. L. (1986). The balance of employment and motherhood: A longitudinal study of mothers' feelings about separation from their first born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22 (5), 627-632.

Hinde, R. A., & McGinnis, L. (1977). Som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s of a temporary mother-infant separation: Some experiments with rhesus monkeys. *Psychological Medicine*, 7, 197-212.

Hock, E. (1976). *Alternative approaches to child rearing and their effects on the mother/infant relations*. Urbana, IL: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Early Childhood Education (ED 122943).

Hock, E. (1978).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with infants: Perceptions of their careers, their infants needs, and satisfaction with mo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4, 37-43.

Hock, E. & Clinger, J. (1981). Behavior toward

- mother and stranger of infants who have experienced group day care, individual care, or exclusive maternal car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 49-61.
- Hock, E., Gnezda, T., & McBride, S. (1984). Mothers of infants: Attitudes toward employment and motherhood following birth of firs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425-431.
- Hock, E., DeMeis, D., & McBride, S. (1988). Maternal separation anxiety: Its role in the balance of employment and motherhood in mothers of infants. In A. E. Gottfried and A. W. Gottfried (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 New York: Plenum.
- Maital, S. L. (1983). An examination of American and Israeli mothers'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preschool entry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 339-B.
- McBride, S. L. (1983).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in mothers of 3- to 4-month infa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 McBride, S. L., & Belsky, J. (1988). Characteristic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Child Development*, 24, 407-414.
- Schaffer, R. (1977). *Mother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einraub, M., & Lewis, M. (1977). The determinants of Children's responses to separ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2, (Serial No. 172).
- Yarrow, M. R., Scott, P., de Leeuw, L., & Heinig, C. (1962). Childrearing in families of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Sociometry*, 25, 122-140.

## **Maternal separation anxiety on the pattern of Child care and mother's employment**

Sung - Ok Park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the characteristic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nd to find its related variables.

Subjects were consisted of 297 mothers who had children from 6 to 36 months of age. The measurement instruments are the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the following parts; 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Cho and Park, 1992), Maternal Role Inventory(Farel, 1980) and interview on the pattern of child care and mother's employment.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 based on frequency, Percentile, Kruskal-Wallis ANOVA, t-test, F-test, Scheffé r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difference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ccording to the pattern of child care, in respect of trusting degree for caregiver, the higher trust degree resulted in the lower maternal separation anxiety ( $p < .001$ ).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1$ ) in the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ccording to prenatal employment plan,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employment preference.

Maternal separation anxiety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 $r = -.41$ ,  $p < .001$ ) with mothers' positive attitudes for their occupations.